



27일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오리 매몰지 천장이 주저앉아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8일 오리 1만6370마리가 살처분된 이 매몰지 주변에선 숨을 쉬기 거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겼다. 이 매몰지도 주변 수질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엉망 장마철 전염병·수질오염 2차 피해 우려

전남지역 최근 2년 매몰 154곳 중 지하수 수질조사 1곳뿐  
토양환경·악취 조사는 생략... 道 뒤늦게 시·군에 조사 공문

전남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의 주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마철을 맞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해당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전염병 발병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I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는 영암(57곳)을 비롯한 나주(49)·함평(8곳)·구례(7곳)·해남(6곳)·무안(6곳)·담양(4곳)·강진(4곳)·순천(3곳)·영광(3곳)·장흥(2곳)·보성(2곳)·장성(1곳)·고흥(1곳)·곡성(1곳) 등 15개 시군 154곳이다.

이들 매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매몰지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각 시군별로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 뒤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 2~3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이후 3년간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 항목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관측정 수질·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토양환경조사·하천수 수질조사·악취조사 등으로, 해당 각 시군은 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사후관리의 무항목인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가축매몰지 주변 150m 이내 위치 한 지하수 관정)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남도와 각 시군이 제출한 AI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몰지 154곳 중 주변 수질조사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순천 낙안·올해 2월 3일)에 불과했다. 154곳의 매몰지 가운데 주변

(150m 이내)에 민가가 없어 관정을 설치하지 않아 수질조사를 안 해도 되는 장소는 15곳, 매립방식(FRP 탱크 저장)에 따라 조사대상이 아닌 장소는 13곳이었다.

이처럼 매몰지 주변 수질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지 아닌지를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매몰지 주변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를 진행하도록 해당 시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이들 각 시군은 뒤늦게 다음달 말까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남도는 관측정 수질 또는 토양 환경측정, 하천수 수질, 악취조사는 조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들 항목은 관련 지침상 담당 공무원이 문제(민원 등)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시군은 지하수 수질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선 '해당 없음'으로 규정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매몰지역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수질 오염 및 전염병 발병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면 해당 매몰지에 대한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장마철을 맞아 하천 옆 또는 경사로에 조성된 일부 매몰지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로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시군 담당자들이 관련 지침을 잘 몰라 그냥 넘어간 것 같다"며 "일부는 지하수 수질조사와 관련, 지하수 담당 부서와 AI 관련 부서간 업무 경계를 놓고 미루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제동

기재부 예비타당성 부정적... 규모 축소·변경 불가피

광주시의 현안인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측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평가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내부판단을 전해들었다. 예타 통과에는 일정 규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그 타당성을 지수화해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예타결과를 토대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시가 불가피하게 사업규모 축소나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로서는 기재부에서 새로운 예타 조건을 부과한 점도 걸림돌이다. 구체적 사업 소요비용 등을 담은 실시계획안을 제출하

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예산도 2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곧바로 실시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연말께나 그 결과가 나와,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는 어렵게 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광주시의 입장을 정리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사업 예산은 국·시비, 민간자본을 통틀어 1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내용은 중외공원 82만2000여㎡와 용봉지구 10만5000여㎡에 비엔날레자료관, 파빌리온(진열관) 형태의 국가관, 음악당, 공방촌 등을 만들어 광주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명사십리·가마미 해수욕장 내달 1일 개장

전남 54곳 15일까지 문 열어

오는 7월 1일 완도 '명사십리'와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도내 54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약 4km에 달하는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등의 경관이 뛰어나 2013년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되는 등 '국민 휴양지'로 자리잡았다.

국가 지정 명승 제9호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진도 '가게' 해수욕장은 15일 개장한다. 승용차 826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정한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에 목표 외달도, 함평 돌머리, 진도 가게 해수욕장 3곳이 포함되는 등 전남 해변이 맑고 즐거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8일 보성 울포, 15일 해남 송호와 고흥 남열해돋이 등 유명 해수욕장이 연이어 개장, 휴가철을 맞은 전국의 피서객들을 맞는다.

전남도는 안전요원·안전장비 확보 예산 14억원을 투입했으며, 소방본부·해경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각 해수욕장별로 개마기 체험, 음악회, 영화 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여수·무안에서는 7월 바다수영대회와 9월 핀수영 대회, 10월 윈드서핑 대회가 펼쳐진다. 목포에서는 8월 국제 파워보트 대회와 9월 다도해 국제요트대회(9월)가, 보성·함평에서는 7월과 8월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북구 갑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습니다. 이제 '범무법인 민' 광주 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오니 많은 격려 부탁 드립니다.

**주요경력**

-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 법무관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노동·공정거래 분야)
-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광주북구갑)
- 현 중소기업청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2분과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광주북구갑)

**주요학력**

- 광주 각화초, 각화중, 동신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39기)

**변호사 정준호 올림**

함께하는 사람들

- 윤영규 대표변호사, 김경배 변호사
- 윤일권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 최기조 사무국장, 박근욱 사무장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지산동)  
☎ 233-7900 ■ Fax. 233-7901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